

## 165.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 (32)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견디지 못하는 안료 프린트

#### □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견디지 못하는 안료 프린트

#### 해설)

- 원피스를 드라이클리닝 하였는데, 무늬의 색이 옅어졌다는 소비자의 클레임이 있었음. 원래의 색은 부속의 벨트와 같은 색이었다고 함. 일반적으로 드라이클리닝으로 수용성인 면소재용 반응염료가 심하게 탈락되는 예는 거의 없음. 반응염료의 퇴색은 빛, 가스, 가수분해 등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므로 염색 견뢰도가 낮아도 드라이클리닝으로 퇴색되는 일은 거의 없음.



- 그러므로 본 사고사례는 안료 프린트의 탈락으로 추정되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 라이트 관찰을 해보면, 선명하지 못했던 무늬가 검은 그림자가 되어 명확한 윤곽을 보이며, 또한 N-메틸-2-피롤리돈 시험에서 색이 용출되어 시험 부위 무늬의 색이 퇴색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상의 실험결과로 본 프린트 직물은 유용성의 안료 프린트로 염색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본 제품의 취급표시에서는 석유계 용제 드라이클리닝 표시로 되어 있어 비교적 영향이 적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안료 프린트는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에서는 심하게 탈락될 가능성이 커서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이 제품은 100% 코튼이라고 하는 소재에 안료 프린트로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표시는 드라이클리닝 불가, 물세탁이라는 표시가 적합한 제품으로 사료되었음.

♠ 자료출처 :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http://www.textilecare.kr)